

이미 일부 후보생들도 각자 선호하는 무기를 움켜쥔 상태임을 확인한 정명은 상황파악이 늦은 후보생들이 고블린들의 조악한 나무몽둥이와 녹슨 검에 맞아 픽픽 쓰러져 나가는 걸 보았다.

비록 랭킹 500위 이내의 랭커들이었을 지라도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닌 본래의 몸으로 무방비하게 고블린의 공격을 맞고 무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백마리의 고블린을 모두 죽여 없애려면 최대한 다른 후보생들을 살려둬야 유리해.’

정명은 바로 앞에서 바닥에 엎어져 고블린에게 습격당하는 소년에게 달려가 나무몽둥이를 내려치는 고블린의 손목을 향해 양손검을 크게 휘둘렀다.

- 좌악—!!

간발의 차로 양 손목이 잘려나간 고블린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흠뻑려진 고블린의 혈액을 온 얼굴에 적신 소년은 잔뜩 흥분해 거친 호흡을 연신 내뿜었다.

“흐으으읍! 흐으으읍!”

“정신차리고 얼른 저쪽으로 가서 무기를 들어!!! 저놈들을 다 죽여야 너도 살 수 있다고!”

살금살금 거리를 좁히는 고블린들을 주시하며 정명은 바닥에 쓰러진 소년의 어깨를 발로 쿡쿡 찌러 일으켜 세웠다.

허겁지겁 일어나 정명이 무기를 뽑아온 상들리에를 향해 달려가는 소년은 이제 겨우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그것도 평생 싸움이라곤 해본 적 없어 보이는 유약한 인상의 안경 쓴 소년이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죽음의 위기 앞에 이성을 잃는 건 자연스러웠다.

‘방심했다. 구원의 엘라이안이 이런 악취미를 갖고 있을 줄이야.’

구원을 약속하는 자애로운 여신 엘라이안이 벌린 이 용사선발전이 사람의 목숨 따윈 파리목숨처럼 갈려나가는 생존게임이란 걸 체감한 정명은 이를 악물었다.

‘탐을 빠져나가려면 용사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이상 이 쪽도 물러설 곳이 없단 말이다.’

다시 혼자가 된 자신을 향해 킬킬거리며 다가오는 고블린 세 마리를 노려보며 정명은 양손검의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러니 증명해 보이마. 나의 자격.’

정명과 세 고블린 사이의 대치를 깨트린 건 고블린들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놈이었다.

나무방패와 투구, 한 손 검으로 무장한 그 놈은

홀로 붉은 도료를 방패와 투구에 발라놓은 상태였다.

‘저 붉은 투구와 방패. 십장고블린이다.’

십장고블린이 몸 대부분을 가리는 나무방패를 앞세워
거리를 좁히는 동안 뒤에 있던 병사 두 마리가 나무뿔
둥이를 쥐고 서서히 정명의 좌우로 포위해 들어오는 형
국.

끼잇끼잇거리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이런 조직적
인 사냥이 익숙해 보였다.

‘지금의 내 능력치로는 이 놈들을 한 번에 상대하긴 버
거워.’

자신이 이제 갖 캐릭터를 생성한 수련생 클래스임을 떠
올리며 정명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지 생각했다.

‘원작에서 고블린은 족장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지휘
체계를 갖추고 전투를 벌인다는 설정이었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정명은 자신이 무엇을 공략해야

하는 지 금세 보였다.

‘저 놈을 먼저 죽여버린다면 저들의 단합도 깨질 거야.’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정확히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지는 모른다.

그러나 게임에서도 십장고블린을 제거하면 주변의 고블린 병사들은 선공태세를 해제하고 전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능한 추론이었다.

‘추가로 우리도 저들 같은 단합력을 조금이나마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싸움 해볼만 해.’

그 순간 정명은 손에 쥔 양손검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어올렸다.

그리곤 있는 힘껏 목청을 키워 콜로세움 안의 모든 후보생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옆사람과 어깨를 맞대라!!! 방패 든 놈을 먼저 죽여야 우리가 이긴다!!!”

곧 정명과 합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세 마리 고블린이 순간 흠칫하며 정명과 그 주변을 둘러본다.

그들 역시 정명과 마찬가지로 적인 인간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눈 앞의 사냥감이 겁 먹은 토끼가 아니라 발톱을 세운 호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주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정명 또한 마찬가지였다.

돌연 등장한 시스템 창이 그의 시야를 가로 막았기 때문에.

[용사 후보생 유정명이 '용사의 자질: 용맹(勇猛)'을 증명하였습니다. 구원의 엘라이언의 권능으로 동기화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동기화이벤트?...'

[동기화이벤트 '용맹(勇猛)']

일대일 또는 일대다 전투에서 심장고블린 1마리 살해

- 성공 시: 대표 캐릭터 동기화율 1% 상승
- 실패 시: 무작위 부정 특성 1개 획득
- 제한시간: 00:01:00

갑자기 들이밀어진 제한시간 1분의 돌발이벤트를 보자마자 정명은 엘라이언의 악취미에 두 번 놀랐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냐!'

실패 시 부정특성 1개를 획득한다는 걸 보면 거부권따
윈 주어지지 않은 상태.

잡념은 접어둔 채 오직 성공만을 생각해야 했다.

‘아까 상태창을 봤을 땐 동기화율이 0%였어. 만약 성공
해서 동기화율이 상승하면 그 만큼 내 대표 캐릭터의
힘을 얻는 게 아닐까?’

위기와 함께 다가온 기회를 마주한 정명이 침착함을 유
지하는 동안 그가 내뿜었던 기백은 세 마리 고블린을
넘어 주위의 다른 후보생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저 사람 마지막으로 들어온 후보생이잖아?’

‘기억났다. 방패를 든 놈이 십장이었지.’

‘맞아. 해볼 만해 이거.’

이제껏 우왕좌왕하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던 후보생
들은 자극을 받아 전투의지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이제야 정명이 양손검을 획득한 상들리에에
서 장창을 꺼내 쥐는 데 성공한 중학생 소년 김지용도
있었다.

‘저 사람. 우리 길마 형이랑 닮은 거 같아.’

김지용이 소속된 화신길드는 전체서버 통합 공성전에서

여러번 우승한 전적이 있는 명문 길드였다.

화신의 쟁쟁한 길드원들 중에서도 길드마스터는 레이드와 각종 공성전에서 길드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강인한 리더로 유명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전부 500위 이내 랭커들이라 했으니까. 어쩌면 진짜 길마 형일 지도.’

생각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김지용은 혼자서 고블린셋을 상대중인 정명을 향해 달려갔다.

그땐 이미 다른 후보생들 역시 다시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방식대로 대형을 만들고 있었기에 어느새 전황은 크게 변해 있었다.

처음 고블린들이 밀려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서로가 쉽사리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대치중인 상황이 된 것이다.

허나 정명을 상대하고 있는 십장고블린은 아랑곳 않고 홀로 선공을 걸어왔다.

“키이이이잇!!!”

자신을 향해 빠르게 돌진해오는 상대를 보며 정명은 녀석이 어떤 공격패턴을 갖고 있는 지 기억해냈다.

십장고블린의 방패돌진은 명중 시 상대를 넘어뜨려 그로기 상태를 유발한다.

그리고 놈과 함께 다니는 고블린 병사들은 인식범위내

에 그로기 상태인 적이 있으면 해당 적을 우선공격하는
기막이 있어 서로 연계공격이 가능했다.

반드시 허용해선 안 될 공격이었음에도 지금은 피하는
것 또한 피격되는 것에 못지 않게 리스크가 컸다.

‘남은 시간 41초. 합이 길어지면 실패한다.’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제하는 십장고블린을 끝까지 눈으
로 쫓던 정명은 그대로 뒤돌아 앞으로 한 발짝 내딛었
다.

그 모습을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라 확신한 십장 고
블린은 씨익 웃으며 방패를 쥔 팔에 힘을 싣는다.

전황을 뒤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 인간을 죽
인다면 사냥감들의 기세가 다시 꼬꾸라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헌데 눈 앞의 인간은 어째서 다시 뒤돌아 자세를 낮추
고 자신에게 검을 향하는 것일까.

상대의 볼 옆에서 반사광을 번쩍이는 저 룡소드처럼 곧
게 뻗은 그 시선과 마주한 순간.

십장고블린은 본능적인 불안이 폐부를 찌름에도 이미
스스로 돌진을 멈출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았다.

- 콰직—!!!

저돌적이었던 십장 고블린의 방패돌진은 정명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높은 끔찍한 격통이 이글거리는 손목과 배를 내려다보곤 정신이 아득해졌다.

배에서 터져 나온 자신의 시뻘건 피가 방패를 뚫고 들어온 룡소드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바닥에 엉겨 붙고 있었기 때문에.

"키이이...잇....."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채 파악할 시간도 없이 십장고블린의 의식은 빠르게 사라져갔다.

[용사후보생 유정명 '동기화이벤트: 용맹(勇猛)' 성공. 대표 캐릭터의 레벨 1%와 동기화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정명의 몸을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솟구쳐오르는 황금빛의 격류가 감싸기 시작했다.

[용사후보생 유정명 레벨 상승! Lv.1 → Lv.2]

[용사후보생 유정명 레벨 상승! Lv.2 → Lv.3]

.....

[용사후보생 유정명 레벨 상승! Lv.9 → Lv.10]

시야를 뒤덮으며 주르륵 밀려 올라가는 레벨 상승 메시지를 본 정명은 날 선 긴장이 풀렸다.

‘민첩보다 스텟이 두 배 더 높은 힘을 믿고 질러본 게 먹혔다. 다행이다.’

가슴 앞으로 짧게 찌른 롱소드의 자루를 두 손으로 받쳐주고 방패돌진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정명은 아려오는 손을 검에서 떼었다.

나무방패를 뚫고 십장 고블린의 배에 깊게 박힌 롱소드를 다시 뽑아 쓸 시간에 차라리 죽어버린 상대의 녹슨 검을 노획할 생각이었다.

예상치 못한 직속상관의 죽음에 당황한 고블린 병사들이 전의를 잃고 자리를 벗어나던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정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 저 왔어요!”

정명이 알기로 자신을 저렇게 편하게 형이라 부를만한 동생은 딱히 없었다.

과거 화신의 길드마스터였던 때는 게임 내에 인맥도 제법 있었지만 최근 몇 년은 길드도 없이 혼자 플레이해왔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도 모두 연락이 끊겼고 과거의 게임친구들에게 실제 얼굴을 보여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 하나가 급한 상황이라 일단 아는 체를 했다.

“어 왔어?”

대답을 건내면서 보니 아까 전 정명이 살려주었던 소년이 장창을 쥐고 옆을 지키고 서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정명의 발목을 잡던 녀석이 순식간에 이미지가 달라진 느낌.

유약했던 첫인상은 열어지고 철테안경 너머의 눈빛은 제법 푹푹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형. 이번엔 제 차례예요.”

“고맙다. 내가 장비 주울 동안 망 좀 봐줘.”

“네!”

정명은 김지용의 호위를 받으며 십장고블린의 식어가는 몸을 뒤졌다.

【 십장 고블린의 녹슨 검 】

십장고블린에게 지급된 보급품 검. 높은 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비등급: C

【 십장 고블린의 투구 】

휘하에 10명의 고블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십장(十將)의 징표. 높은 방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비등급: C

체력 +2

‘없는 것보단 낫겠지. 둘 다 쓰자!’

노획한 심장고블린의 검과 투구로 무장을 마친 정명은 자신의 상태창을 열었다.

[용사 후보생 유정명의 상태창]

레벨: 10

클래스: 견습기사

능력치

- 힘: 30

- 지능: 20

- 민첩: 15

- 체력: 12 (+2)

특성: 【 견습기사의 검술 】, 【 마력회로 】, 【 오러발현 】

대표 캐릭터의 개인랭킹: 1위

대표 캐릭터 동기화율: 1%

‘1차 전직을 했을 뿐 아니라 능력치와 특성까지 마검사 트리로 찍혀있다. 대표 캐릭터와 동기화한다는 게 내 캐릭터가 밟아온 성장과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였구나!’

정명이 개인랭킹 1위까지 키운 대표 캐릭터의 클래스는 마검사(魔劍士)였다.

검술과 마법의 장점을 결합한 유동적이고 화려한 전투가 특징인 마검사는 마법계열과 물리계열의 적중 어느 쪽을 만나도 상성을 타지 않는 강점이 있었다.

반면에 검술과 마법 양쪽 모두 일정이상의 경지를 넘기 어려워 보통 길드의 간부들은 마검사보다는 소드마스터 같은 단일계열 클래스들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편을 선호했다.

그러나 솔로플레이를 원했던 정명에겐 유연한 상황대처가 가능한 마검사가 최적의 클래스였기에 전직변경권까지 구매해 마검사로 갈아탔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약한 오러라도 발현할 수 있다면 썩 괜찮은 방법이 있다.’

현재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정명은 자신을 호위하던 소년을 바라보았다.

‘일단 이 녀석이 날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써먹어 봐야겠어.’

